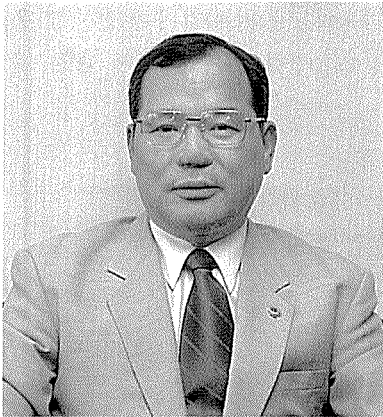


신임 지회장에게 듣는다

“회원의 발전과 화합에 힘쓰겠습니다”

이하두 신임 부산광역시 지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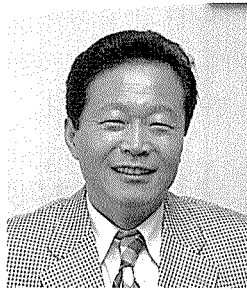


이하두 지회장

35차 정기 총회에서 제18대 회장을 맡은 이하두 신임 지회장은 역대 지회장들이 두터운 신망과 조직 활성화에 대한 신념으로 오늘날의 부산광역시 지회를 일구어 낸 것처럼 이런 전통을 살려 보다 발전된 지회로 발돋움시키겠다고 밝혔다.

이하두 지회장은 취임과 함께 5명의 부회장과 2명의 감사 등 임원진을 구성했다. 부회장 중 2명을 유임시킨 데서 나타나듯 기존의 지회 운영의 큰 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조직 발전을 위한 새로운 방안도 함께 병행하겠다는 의중을 읽을 수 있다.

그동안 부산지회는 5명의 부회장이 각각 하나의 분과를 맡아 지회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추진해 왔다. 이하두 지회장 체제가 들어서면서 약간 달라진 변화는 기획·조직 분과의 신설이다. 이름 그대로 조직의 개선점과 발전을 위해 아이디어를 내고 이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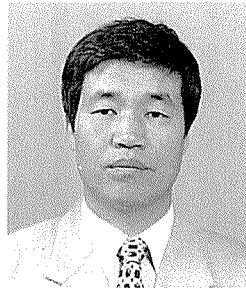
장정현 부지회장(기획·조직)



김유복 부지회장(공동구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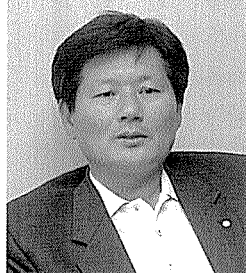
이호영 부지회장(기술)



지강연 부지회장(자율지도)



이인수 부지회장(홍보)



송유일 감사




김광진 감사

관련된 일을 맡아 추진하는 역할이다.

공동 구매·자율지도·기술·홍보 등 기존 4개 분과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지회에 관련된 행사, 세미나 등을 포함해 회원의 단합과 발전을 도모하는, 이른바 일반 업체로 치면 그룹의 기획 조종실과 같은 것이다. 이 기획·조직 분과의 신설은 부산 지회의 운영이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지 가늠케 하는 대목이다.

“현재의 불경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선진화가 필요합니다.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함으로써 고객에 한걸음 다가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우수한 기술인을 초청해 세미나를 실시하는 등 회원의 기술 발전에 힘쓸 계획입니다.”

이하두 지회장은 회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규모 업소가 긍지를 갖고 생업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14개 각구 지부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산 지회의 단합의 장인 ‘과업의 날’ 행사를 다채롭게 운영하는 방안을 통해 회원의 친목과 단결을 더욱 다진다는 복안이다.

부산광역시 지회는 전국 지회 지부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조직답게 언제나 앞선 지회 운영을 보여왔다. 이런 전통을 이어 받아 한층 발전된 지회 운영을 꿈꾸는 제18대 집행부의 행보가 기대된다. 

“회원의 화합에 최우선을 두겠습니다”

정만규 신임 대전광역시 지회장

“지회장이라는 직책이 회원에게 봉사해야 하는 자리이고, 이것저것 신경도 많이 써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많습니다. 하지만 임기 동안 열심히 노력해 일을 많이 한 지회장으로 남고 싶습니다.”

지난 3월 16일 제34차 정기 총회에서 신임 지회장으로 선출된 정만규 지회장의 취임 소감이다.

지난 달부터 정 지회장은 바쁜 시간을 보냈다. 지회 총회 이후 실시된 5개 지부의 정기 총회에 참석했다. 그 사이에 지회 운영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앞으로 어떻게 대전광역시 지회를 이끌어 나갈지 구상도 해야 했다. 이런 상황은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향후 지회 운영 구상은 가장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현재도 이 부분에 가장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

취임 초기인 탓에 지회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세워지지 않은 상태이다. 하지만 2년간 지회를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 중점을 둘 큰 골격은 잡힌 상태이다. 정만규 지회장이 밝히는 운영 방향은 회원의 화합에 중점을 두겠다는 것과 친절하고 봉사하는 지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협회를 이끌어 나가고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회원의 결집된 힘입니다. 이는 회원의 화합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화합이란 말이 너무 많이 사용돼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도 있지만, 조직을 유지하고 또 이끌어 나가는 데 화합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만규 지회장이 특히 강조하는 것은 선후배간의 화합이다. 젊은 연령층의 회원과 그들보다 나이가 많은 회원들이 서로 협력하는 신·구의 조화를 통해 대전광역시 지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계획이다. 한명의 회원이라도 소홀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에서도 정 지회장의 회원 화합에 대한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전임 지회장이 재임 기간 중에 지부간 단결과 회원 화합에 힘쓰신 덕에 저희 지회는 융합이 잘 돼 왔습니다. 전임 지회장의 지회 운영의 연장선상에서 저는 대전광역시 지회의 이런 장점이 더 발휘될 수 있도록 힘쓸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 정만규 지회장은 조만간 회원 단합대회를 가져 회원의 화합을 다지는 첫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밖에 내년에는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등 시간을 두고 회원의 친목과 화합을 더욱 다질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방안을 구상 중이다.

정 지회장이 화합 외에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친절하고 봉사하는 지회 운영

이다. 회원이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직원들이 친절하게 대하고 성심성의껏 업무를 처리하는 등 누구나 지회를 부담없이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저희 지회에는 제과연구회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여기와 협력해 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회원의 기술 발전을 꾀하고, 또 공동구매 사업 실시 등 회원에게 이익이 되는 방안을 검토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만규 신임 지회장은 대덕구지부장을 역임한 바 있고 대전광역시 지회 이사로도 몸담은 바 있다. 따라서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조직을 발전시키고 이끌어 나가는 데 회원의 화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다. 이런 화합은 지회에 대한 신뢰가 기반이 돼야 한다.

정 지회장은 지회 운영의 투명성은 물론 자신이 모든 면에서 떳떳할 수 있도록 임기 동안 힘쓰겠다고 밝혔다. 2년간 대전광역시 지회를 이끄는 중책을 맡은 정만규 지회장이 앞으로 회원의 화합을 더욱 다지고 봉사하는 지회로 가꿔 나가기 위해 어떤 활동을 펼칠지 기대해 본다.

〈박종선 sunpark@mbakery.co.kr〉